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k.net

주일오전설교 | 야곱의 하란 생활--결혼

[창세기 29:1-6]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족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야곱은 고향을 떠나 외롭고 쓸쓸하게 먼 곳 동방 사람들의 땅 곧 하란 가까이에 왔다. 그는 한 우물곁에서 목자들이 세 무리의 양떼를 누이고 물 먹일 때를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하란에서 온 자들이었다. 야곱은 그들에게 나홀의 손자 라반의 안부를 물었다. 그들은 라반이 평안하다고 대답하며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고 말했다. 야곱은 그의 아내가 될 라헬을 하란 부근의 들판 우물곁에서 이렇게 처음 만났다. 야곱의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신비롭다.

[7-14절]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이었던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아기)친척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고하매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라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양떼를 몰며 왔다. 야곱은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양떼를 보자 나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맞추며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친척이며 리브가의 아들임을 말했다. 쓸쓸했던 긴 여행으로 그의 가슴은 눈물로 가득하였다. 라헬은 달려가서 라반에게 고했고 라반은 조카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하였다. 야곱은 자기

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였고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였다.

[15-20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무엇이 네 보수(報酬)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야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야는 안력(眼力)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라반이 야곱에게 무엇이 네 보수겠느냐고 물었을 때 야곱은 그의 딸 라헬을 사랑하므로 그를 아내로 주시기를 요청하며 그러면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라반은 그 일을 허락하였다. 이렇게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7년 동안 수고로운 봉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했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사랑은 수고로운 긴 7년간을 수일같이 여기게 만들었다. “7년을 수일같이!”—이것은 야곱의 사랑의 힘을 잘 증거한다. 사랑의 힘은 참으로 크다.

야곱의 결혼은 이렇게 준비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섭리하신다. 그러나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롬 11:36). 야곱의 결혼은 라헬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준비되고 있었다. 결혼은 사랑의 관계이다. 결혼의 중요한 조건은 사랑이다. 그 외의 다른 조건들은 부수적일 뿐이다. 다른 좋은 것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는 결혼은 삭막할 것이며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21-25절]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7년의 기한이 찼다. 야곱은 라반에게 아내를 주어 그에게 들어가게 하시기를 요청했다. 라반은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를 열었고 저녁에 그 딸 레야를 그에게 데려다주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야이었다. 라반은 야곱을 속였다. 전에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은 이제 외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야곱은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기억했을 것이다. 사람은 행한 대로 받는다.

[26-30절]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중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이를 위해 7일을 채우라”는 원어는 “이 주간을 채우라”는 말로 레아를 위한 혼인 잔치 주간을 채우라는 뜻이라고 보인다(KJV, NASB, NIV). 7일 후, 라반은 그의 딸 라헬도 그의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원치 않게 두 아내, 그것도 형제인 두 아내와, 그들의 두 여중을 얻게 되었고 또 7년간의 수고로운 봉사를 더 하였다. 야곱은 그의 두 아내로 인해 심적 고통이 컸을 것이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여중 하갈로 인해 그런 고통을 당했었다(창 21:11). 또 야곱은 결혼을 위해 14년이라는 긴 세월을 수고로이 보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혹독한 고난의 훈련 과정이었다. 인간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는 그의 종들을 고난을 통해 단련시키신 후 쓰신다. 후에, 요셉도 그러하였고 모세도 그러하였으며 다윗도 그러하였다.

[31-35절]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 미움 받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無子)하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 미움 받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섭리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미움 받음을 보셨고 그를 돌아보셨다. ‘총이 없다’는 원어(세누아)는 ‘미움을 받다’는 뜻이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다른 하나는 미움을 받는 것이 된다. 이것은 주께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치이다(마 6:24).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고 레아가

아무 잘못이 없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동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심으로 그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 야곱에게 자녀들을 주셨다. 야곱의 자녀들은 먼저 레아를 통해 출산되었다. 출산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다고 말한다(31절).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태를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신다(창 20:17-18; 30:2, 22; 삼상 1:19).

레아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했던 과정을 통해 경건의 훈련을 받았을 것이다. 사람은 고난 중에 인격 단련을 받는다. 레아는 첫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으며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라고 말했고, 둘째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받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라고 말하며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다. 그는 셋째 아들을 낳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고 말하며 그 이름을 레위라 지었고, 넷째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고 말하며 그 이름을 유다라 지었다. 그가 지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며 의지했는지 엿볼 수 있다.

창세기 29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사랑은 수고로운 세월을 잘 견디게 한다.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수 일같이 여겼다. 또 그는 그 7년을 잘 참았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미혼자의 순결성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옛날부터 경건한 사람들은 미혼자의 순결성을 중요하게 여겼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의 순결성을 귀히 여기며 참고 기다려주는 것이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잘 참고 수고로운 시간들을 잘 견디었다. 남녀간의 사랑도 이렇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그러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속죄제물로 내어주셨다(요 3:16; 롬 5:8).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의 모든 계명을 즐거이 지킬 수 있고,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일들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다. 신명기 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고린도후서 5: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둘째로, 아버지를 속였던 아굽은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했고 14년 동안, 후에 6년을 더하면 20년 동안 혹독하게 수고로운 삶을 살았다. 그것은 그 자신의 부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나 훈련의 과정이었다고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특히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훈련이 있다. 갈라디아서 6:7-8,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마태복음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든지 사람에게 대해서든지 동일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야 한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아굽에게 고난 중에서도 가정을 세우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 가운데 아굽에게 두 명의 아내들과 여종들을 얻게 하였고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될 자들이 태어나게 하셨다. 결혼이나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특히 자녀 출산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31절은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식이 없었다”고 말한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고난 중에 믿음의 단련을 받았다고 보인다. 그는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는 믿음 있는 이름을 지었다. 육신의 가정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건립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의 구원과 양육과 참 교회의 건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고린도전서 3:6-7,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주일오후설교 레위 지파의 직무와 보수

[민수기 18:1-7]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와 함께] 이타크(KJV, NASB) 네 아들들과 네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너와 함께]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너와 함께] 네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 . .

1절에 ‘성소에 대한 죄’란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대해 범하는 죄를 뜻하며 제사장들은 그 죄에 대해 책임이 있다.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란 제사장이 그 직

무를 수행하다가 실수로 범한 죄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서는 레위인들을 제사장들에게 주셔서 그들을 섬기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의 직무에는 제한이 있었다. 그들이 성소의 기구들과 단에는 가까이 못하였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의 일들을 행하였고 외인들이 가까이 못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제사장들이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게 하셨다.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을 수종자로 삼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것이다. 레위인들 외에는 아무도 성소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제사장들을 중보자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다.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8-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擧祭物, 테루뭇)[‘드는 제물들 heave offerings’ (KJV) 혹은 ‘제물들’(NASB)]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應食)[뉘오]로 주노라. 지성물(至聖物)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네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곡식제물]와 속제물과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네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네게 성물(聖物)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드리는 거제물(擧祭物)과 모든 요제물(테누뭇)[‘흔드는 제물 wave offerings]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너와 함께] 네 자녀에게 영영한 음식(應食)으로 주었은즉 네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켈렐 곁)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네 것이니 네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켈렐 뉘) [devoted] 모든 것은 네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네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代贖)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다섯 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레레아크 니코아크)[속죄(유화)의 향기를 위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네게 돌릴지니 혼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같이 네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擧祭)로 드리는 모든 성물(聖物)은 내가 영영한 음식(應食)으로 너와 [너와 함께]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너와 함께] 네 후손에

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 . .

하나님께서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물들과 예물들을 관할하게 하셨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영원한 음식(應食)〔뭉〕으로 주셨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모든 곡식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또 모든 소산들의 첫 열매들, 즉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가장 좋은 곡식을 자신들의 소유로 얻었고 그 거룩한 제물을 먹기에 합당치 않은 죄를 범하지 않은 모든 제사장들의 남녀 가족들이 그것들을 먹었다.

제사장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가축의 첫 새끼들도 취할 것이다. 사람의 만아들이나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는 값을 쳐서 돈으로 대속(代贖)할 것이며, 정결한 짐승은 제물로 드려 그 피를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사르고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모든 성물은 제사장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땅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과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었다.

[21-24절] 내가 이스라엘의 십일조(마아세르)〔10분의 1〕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 . .

하나님께서서는 레위인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 그들은 제사장들을 도와 회막의 일을 하는 자들이었고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십일조를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것은 그들의 회막 봉사의 일에 대한 보수(報酬)이었다. 그 대신, 그들은 세속적인 일을 하지 않았고 오직 성막 봉사의 일에만 전념하여야 했다. 일반 사람들이 회막에 가까이 하면 죄가 되어 죽을 것이었으므로, 오직 레위인들이 회막의 일을 해야 하였다.

[25-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레위인에게 고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擧祭)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 . .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드린 십일조를 취하되 그 중에서 십일조, 즉 십일조의 십일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줄 것이다. 그들이 구별할 십일조는 모든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곧 ‘가장 좋은 것’이어야 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십일조를 드릴 때도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구

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그 가장 좋은 것을 제사장들에게 드리야 하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규례이었다.

민수기 18장의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로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딤후 2:5). 히브리서 4:14, 16,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10:19,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신약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벧전 2:9)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선을 행한다(히 13:15-16).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소득의 십일조를 레위 자손들에게 주게 하셨고 또 레위 자손들은 그들이 받은 십일조의 십일조, 즉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을 아론에게 주게 하셨다.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한다. 신명기 6:5,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로마서 12:1,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고린도후서 5: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셋째로, 교회는 복음 사역자들을 귀히 여기며 섬겨야 한다. 구약시대에 레위 자손들과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성막 봉사를 위해 구별하신 자들이었다. 그들은 세상에 기업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셨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 십일조로 그들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주께서는 일꾼이 저 먹을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고(마 10:10)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마 10:40) 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5:40).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하였다(갈 6:6).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귀히 여기며 물질적 필요를 공급해야 한다.

- [책안내]** ● 김효성, **누기복음 강해** 제2판. 373쪽. 3,000원.
● 김효성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7판. 108쪽. 1,200원.
● 김효성, **레위기 강해** 제2판. 164쪽. 2,000원.
● 김효성, **역대기 강해** 제2판. 256쪽. 2,500원.
● 김효성, **잠언 강해** 제2판. 624쪽. 4,000원.
● 김효성, **아가서 강해** 제3판. 88쪽. 1,000원.